중소기업의 원초적 죄

김 진 태
한국전자파연구원
전략개발연구팀장
031-679-9538

우리는 '가깝고도 먼' 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흔히 어느 나라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기본적으로 쉽게 친밀감을 형성하리라 예상했던 관계가 그렇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업무를 하다가 그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이 되는 것에 놀라며 '들여다 보자,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더 자세히 보면 중소기업은 가깝고도 먼 존재가 더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양적 비중은 커졌으나, 질적 성장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자 수의 99%, 종사자 수의 88%, 제조업 부가가치의 51%, 비농업민간부문 GDP의 59.4% 등이 그 예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신설법인은 매년 약 50만개에 이르고, 중소기업은 경제 역동성을 이루고 기술혁신의 원천,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하고 종사자의 비중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한계를 뛰어넘고 생산성 향상 등을 이루어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핵심 부품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며 국가경쟁력 순위변화를 이끄는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표 1) 주요국의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구분	사업체수(천 개)		종사자수(천 명)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한 국	3,018	99.9	10,885	87.5
일 본	5,652	99.1	41,984	77.8
대 만	1,244	97.7	7,751	76.6
미 국	26,813	96.1	58,645	50.4
영 국	4,467	99.9	13,186	58.8

※ 중소기업 위상지표(중소기업중앙회, 20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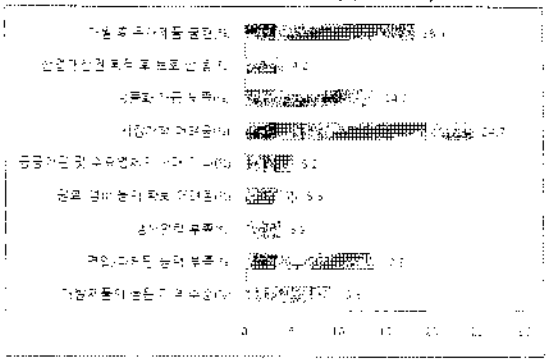
특히 이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력만 믿고 자유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쓴 잔을 마신 기업들의 예를 면밀히 파악 · 분석하여 기술사업화 개념을 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계 최고 대비 기술능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능력이 뒤떨어지는 수준으로는 디자인 능력(70.9%), 제품(상품)기획 능력(73.1%), 시험검사 능력(7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미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 부분에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표 2) 우리 기업의 세계 최고 대비 기술능력 수준

	세계 최고 대비 수준(%)
개발기술 사업화 능력	73.7
유지보수 능력	76.8
생산관리 능력	76.1
제조(조립·가공) 능력	78.1
시험검사 능력	73.2
부품 및 공정 설계 능력	74.9
제품 설계 능력	75.2
신기술(신제품) 개발 능력	74.3
디자인 능력	70.9
제품(상품) 기획 능력	73.1

그러나 반성적인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경영난이 심화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인 반기업 정서도 심화되고 국민들의 편견 등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 한 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가 과거도 오늘도 늘 중요하게 대두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실업이 국가경제를 위협한다는 이 시점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표 3) 중소기업 애로사항(2007년)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

혹자는 '눈높이를 낮추어라.' 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대기업은 일류, 중소기업은 이류, 삼류라는 편견을 버리고 열악한 현실을 가진 중소기업에서 비전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지 제고, 정부의 규제완화 등의 많은 노력에도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가깝지만 먼 무엇' 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원초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깝지만 먼, 올바르지 못한 문화' 에 대해 서로 손을 잡고 손을 대야 할 때가 진정 온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국전자파연구원에서는 이런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험 및 인증서비스 지원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애로해결기술 공동 개발 및 지원,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연구개발 등을 통해 문화가 바뀌는 그 날까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 기술표준 2009.9